



박소현의 섹.시.토.크

친구의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았을 때

이따금 여성포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 "길을 걷다 우연히 친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친구 남편의 부정을 소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단 한가지의 답을 구하기 위해 장문을 글을 올리는 것이다.

"제가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답은 언제나 말을 해야 한다와 모른 척 해야 한다고 광광하게 나누어진다.

말을 해야 한다는 쪽은 친구를 더 이상 바보로 살게 하지 말라, 나중에 외도 사실을 알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당신을 원망하겠느냐는 논리를 편다.

모른 척 해야 한다는 쪽은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일 수도 있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친구의 평온한 삶은 깨어진다. 세월이 지나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진실을 전해준 친구를 오히려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재미있는 것은 대답들이 대부분 '어쨌든 친구를 원망'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말을 안 하면 안 했다고 원망을 듣고, 말을 하면 말을 했다고 원망을 듣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

그 이면에는 이혼녀가 되면 불행해진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진실을 알고는 거짓으로 가득 찬 지금의 부부생활을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홀로 침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때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참아주었다더라면 내가 이혼녀는 안 되었을 텐데...' 하는 원망을 하게 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 자신의 불행은 스스로 온전히 겪어야 하는 숙제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 자신의 불행은 스스로 온전히 겪어야 하는 숙제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되면 남편의 탓이라는 말이 온전히 당사자들의 몫인 부부관계는 물론 전체적인 내 인생에까지 적용되는 셈이다.

'섹스앤더시티'의 후속편이라 불리는 미국드라마 '캐시미어 마피아'에도 똑같은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네 명의 주인공들 중 한 명이 또 다른 주인공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진한 키스를 나누

말이 "말해줘서 고마워. 쉽지 않았을텐데."였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려준 상대를 배려한다는 말은 곧 그 진실에 주체적으로 다가갈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여성은 결국 부부관계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더라도 친구에게 원망을 날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녀는 쉽게 이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렇게 말한다. "너도 15년을 한 남자와 살아봐, 쉽게 끝낼 수는 없어. 그게 남자든 애완동물이든." 그리고 덧붙인다. 함께 휴가 계획을 세우고, 파티에 가고, 밥의 흥을 볼 남편이 필요하다고. 우리라면 아마 그 순간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적어도 친구가 이혼을 안하겠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 그 숙연 친구의 이혼에 내가 책임감을 느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도가 가장 크게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거리에서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나는 친구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아마 앞으로라도 그럴 것이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말이다. <연애칼럼 리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베이징의 뜨거운 열기가 인터넷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인기 검색어는 태극전사들이 독차지 했다. 지난 8일 성대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연일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메달이 쏟아지면서 네티즌의 손길도 분주해지고 있다.

최민호, 박태환, 주현정 등 금메달리스트의 이름이 인기 검색어를 휩쓸고 있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의 중계일정을 묻는 질문도 쇄도하

'살인 미소' 역도 이배영 '부상 투혼' 인기

고 있다. 경기도중 쥐가 나면서 실격을 당했지만 끝까지 바벨을 놓지 못하던 역도의 이배영도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올림픽 문자 중계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베이징과 시차가 한 시간 밖에 나지 않으면서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없는 직장인들이 문자 중계를 찾아 올림픽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문자 중계를 보는 직장인들은 댓글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조용하던 사무실에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오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사

무실 풍경을 전하고 있다. 미스코리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2008 미스코리아 진(眞)에 선발된 나리가 외모 구실수에 오른 데 이어 미(美) 김희경이 누드모델 경력에 문제가 돼 지난 12일 미스코리아 자격 박탈 통보를 받았다.

앞서 축구선수 황재원과의 나태 스캔들에 휘말렸던 2007년 미스코리아 미 김주연도 자격이 박탈되는 등 미스코리아가 네티즌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누드모델 경력때문에 미스코리아 자격을 박탈당한 2008 미스코리아 (미) 김희경.

Large Go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small inset diagram showing a specific move.

Go board analysis section titled '손해만 키우는 백' (White only causes loss) with a small diagram and text explaining a move.

Baduk (Go) news section titled '바둑 소식' (Baduk News) reporting on Jo Ji-hoon's 2nd national title.

리빙 센스

피부의 티, 주름③

■ 눈가에 바르는 스킨 스킨으로 보습하기 위해서 눈가에 찜찜 바르면 오히려 주름을 만든다.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을 눈가까지 바르면 눈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주름이 생기게 된다.

■ 극세사 타월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효과의 극세사 타월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인 각질층이 손상되어 피부가 건조해진다. 각질층이 아닌 목은 각질만 제거해야 하도록 건성 피부는 주 1~2회, 지성 피부는 3회 이하 사용한다.

■ 화장품 비버 바르기 화장품을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가볍게 쓸어 올리듯 바른다. 위에서 아래로 밀어내거나 박박 비버 바르면 피부가 금세 처지면서 주름이 생긴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8월 15일(음 7월 15일 丁亥)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August 15th,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product packaging.

굿모닝 잉글리쉬 <1125> 오하오우 니혼고 <1125> 니하오 쫑구워 <202> 한자 이야기 <842>

English lesson section titled 'It's time to leave for the party' with dialogue and grammar notes.

Japanese lesson section titled '癖(くせ)って、貧乏(びんぼう)ゆすりのこと。' with vocabulary and grammar.

Chinese lesson section titled '你正在做什么?' with dialogue and grammar.

Chinese lesson section titled '배반남자(杯盤狼藉)' with a story and vocabulary.